

신안 섬 생물 5500여종 서식 확인

군, 643개 섬 문헌조사 분석...조류 406종 전국 77% 차지 멸종 위기 풍란·흰꼬리수리·뿔쇠오리 등 76종도 확인

신안군이 섬에 서식하는 생물 종만 5000여종이 넘는 등 '야생생물의 보고'로 확인됐다.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군에 산재한 600여개 섬에 서식하는 생물이 5532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풍란과 흰꼬리수리 등 76종의 멸종 위기종도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역에 분포하는 생물 종을 파악하기 위해 1967년부터 올해까지 척추동물 등 12개 분류군의 기존 연구자료 250편을 분석했다.

이 중 주요 생물 종인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곤충, 관속식물, 해조류 등 12개 분류군(4만130종)에 대한 기존 조사를 비교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

조류는 406종으로 우리나라 전체 조류 527종의 77%가 신안에 서식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관속식물 2557종도 관찰됐다.

주요 보호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뿔쇠오리 등 76종이, 한반도 고유종 참달팽이 등 118종, 보호 대상 해양생물 23종, 천

연기념물 36종도 문헌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멸종 위기종인 풍란은 영산도 등 5개 섬, 수달은 107개 섬에서 관찰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문헌 자료 분석은 신안 섬의 생물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한 첫 단계로 착수했다.

그동안 산재해 있던 관련 자료를 섬과 종별로 총정리했다.

하지만 문헌 조사가 이뤄진 곳은 신안 지역 643개 섬으로 약 380개의 섬에 대한 정보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또 섬별로 이뤄진 문헌 조사가 1~87차례로 차이가 나고 국내 전체 생물상의 26개 분류군 중 12개 분류군에 대한 정보만 정리돼 조사·분석이 확대되면 신안군에 서식하는 생물 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석자료는 조만간 신안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각 섬의 생물상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자연환경 보전과 관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풍란



흰꼬리수리



뿔강해면맨드라미

신안군 공무원들 농수산물 판매 팔 걸었다

군, 농수산물판매유통과 직원 7명 직접 판촉 활동

신안군 공무원이 농수산물 판매, 유통에 직접 나섰다.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1일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농수산물판매유통과' 직원들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우수한 농수산물을 생산하고도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지원하고자 유통과를 신설하고 전담 공무원 7명이 생산자, 유통업체와 함께 직접 판촉활동을 펼친다.

수도권, 부산, 광주 등 전국을 대상으로 향우회, 신안출신 목회자, 군부대, 대형 식품업체, 축산물 가공업체 등 판촉 활동이 가능한 곳은 모두 찾아 나선다.

특히 천일염 판매를 위해 신안군 농협

조합 공동사업법인과 함께 겨울철 제철음 천일염 판매를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의 각 구청, 도로 공사,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 품목 공동브랜드 사용, 소규모 구역화, 디자인·포장재 등 우수상품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신안에는 해풍 맞은 마늘, 양파를 비롯해 섬초인 시금치, 갯벌에 여문 쌀, 갯벌 먹은 전복, 왕새우 등이 품질 좋은 상품이 많다.

전국 70%를 생산하는 새우젓, 젓갈류, 건정, 지주식 급창 김, 세계적인 명품 소금 천일염 등 우수한 농수산물도 다양하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무안군, '스토리가 있는 행복맘카페' 운영

남약건강생활지원센터 '한지와 건강만남' 등 총 6회 진행

무안군이 다음달 2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남약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주민 60명을 대상으로 '스토리가 있는 행복한 맘카페' <사진>을 운영한다.

지역주민이 편안한 심을 가질 수 있는 건강 공간에서 지친 일상을 스토리로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이야기보

파리', '한지와 건강의 만남', '함께 나눠 걸쳐 남약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주민 60명을 대상으로 '스토리가 있는 행복한 맘카페' <사진>을 운영한다.

이야기보파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주제로 주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한다.

한지와 건강의 만남은 한지 공예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적 안정, 신체적 건강을 증진한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영광군, 양파 240t 동남아 수출...농가 활로 찾기

영광군이 과잉 생산된 양파의 가격 폭락으로 인해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 수출을 통해 활로를 찾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양파를 선적해 240t(10컨테이너)을 동남아(태국)지역으로 수출하기로 계약했다.

이번 선적하는 양파는 지역 농가에서 수확한 7cm 미만의 양파로 동남아로 처

음 수출하는 품목이다.

이와 함께 군은 농산물의 취급 농산물의 취급을 확대하는 등 지역 농산물에 대한 수출 다변화를 꾀할 방침이다.

수출 계약에 참여한 영광군유통(주)은 지난해 12월부터 지역에서 생산된 쌀 350t을 군납용 쌀로 판매해 8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로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영광=이준윤 기자 jylee@

'함평군 SNS 홍보단'

30명 규모 공개 모집

함평군이 오는 31일까지 '함평군 SNS 홍보단'을 모집한다.

홍보단은 지역관광명소, 축제, 농·특산물, 맛집과 같은 분야별 콘텐츠를 소개하는 온라인 홍보대사 역할을 맡게 된다.

또 군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공식 SNS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요한 정보는 외부에 공유한다.

모집인원은 30명 수준이며, 다음달 1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지원대상은 SNS 이용자 중 함평에 관심이 많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전자기기 활용에 능숙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함평군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함평군청 기획감사실 홍보팀으로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다음달 1일 개별 연락하고 군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발표된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



한빛원전, 영광 흥농초 등 4개 학교서 '하계 아톰공학교실' 진행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와 영광 흥농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험을 통한 기초과학의 원리를 배우보는 '하계 아톰공학교실' <사진>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아톰공학교실은 한빛원전 직원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

램이다.

실험용 키트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미래 과학도의 꿈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학생들의 만족도가 커지고 있다.

하계 아톰공학교실은 '물을 끌어올려 필요할 때 사용해요'를 주제로 진행됐다.

학생들이 양수펌프로 끌어올린 물의 낙

하를 이용한 비눗방울 생성장치를 만들며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한빛원전은 오는 10월까지 영광과 전북 고창에 소재한 총 6개 초등학교에서 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아톰공학교실'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영광=이준윤 기자 jylee@

그린알로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홈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